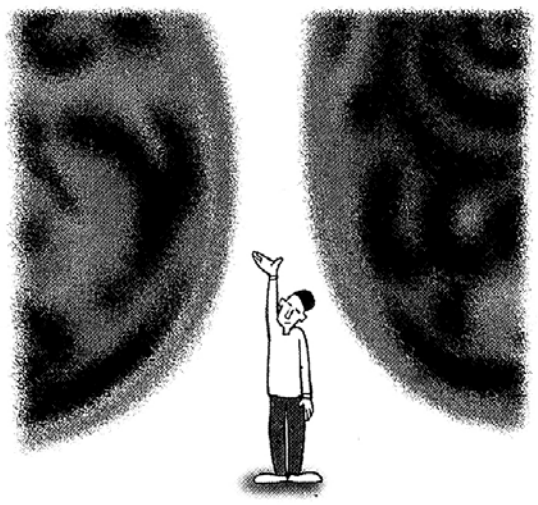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대중 향해 연꽃 들어보이신 부처님 큰 뜻 깨달아야

☞ 19면에서 계속

갖다주니까 소금 파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 김밥 하나를 말입니다. 새로 싸 가지고는, 고 하나 말입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김밥 하나를 종이에다 싸 가지고선 그거를 갖다가 놓고는 부지런히 가는 겁니다, 또. 이거 누가 그렇게 하래도 못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하는 말이 "남편이 다 나았습니다. 인제는 기술이 있는 대로 방에서라도 뭘 하겠다고 합니다. 텐트 쳐놓은 데서는 남편이 일하던 거를 하고, 애들하고는 방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렇게 말해놓고 "스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올면서 소금 아니, 그 김밥 하나를 도로 거기다 놓고 가요. 이렇게 앉았으면 여기다 놓고 갑니다. 그걸 맛있게 먹으라고 손으로 자작한 건데 안 먹으면 됩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참 남편도 낫고 그러니까 공장에 김밥을 말아서 대면서 돈을 잘 벌어 가지고 소금 도매상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어떻게 하더니 지금은 집을 잘 짓고 살게 되었고 애들도 전부 대학까지 다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아니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내 빼먹었어요. 그렇게 소금을 이고 다니더니 어느 날 하루는 소금을 이고 장사를 하는데 하도 피가 흘러서 묵지룩하고 아파서 소금을 이고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도 죽겠으니까 아마 병원에 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암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랬다고 울고 오면서 소금 한 공기를 턱 하니 글쎄 놓고 가는 겁니다. 소금 한 공기를 놓고 하는 소리가, "스님, 저 자궁암이래요." 남의 말하듯, 그러고는 "나가서 일을 해야 할 테니까 빨리 갑니다, 기어서더라도 가야겠습니다." 하고는 엉거주춤하게 걸음을 걷는데 잘 못 걸으면서도 그냥 나가요. '세상에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세상에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생각하니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저런 것인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있으니깐 이건 살려줘야지 하는 의욕이 그냥 이 몸에 확 차면서 눈에 불이 팍팍 나요. 그러고는 한 사흘이 지났는데 오더니만, "스님, 웬지 안 아프고 괜찮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언제 없어졌다고 하면서 오진을 했나." 이러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낫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 건만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걸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알아야 합니다. 재료로! 내가 병이 들었어도 그것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이걸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가난해도 가난한 게 재료요, 아파도 아픈 게 재료요, 만약에 법에 저촉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것도 공부요, 만약에 은행에 부도가 나서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재료요, 모두 재료로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들 해보십시오, 어떠한가.

세 번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두 번 죽어 둘 아닌 도리 깨닫고
세 번 죽어 둘 아니게 나투기 위해

질문자1: 스님께서는 저희에게 세 번 죽어야 하는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한 번 죽을 때의 변화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인공 공부를 하여 단계적으로 죽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단계조차도 그냥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가르침 주십시요.

스님: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를 발견할 양으로 모든 걸 놓고 들어가는 것이, 모든 걸 한 군데다 놓고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니깐,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쑥 없어지죠? 금방 아버지였다가 금방 남편으로,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한마음의 심봉으로 모든 게 돌아가니까 그 심봉을 따진다면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으니까 없는 거죠, 심봉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죠. 그냥 돌아가는 맷돌에 의해서 우뚝 섰으니까, 어느 편에 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깐 바로 거기 침투할 때까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걸로 세울 수 없는 것이, 그 도리를 아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죽어서 둘 아닌 도리를 알고요.

또 세 번 째 내가 죽어서 둘 아니게 나투는 거죠, 왜 법신 · 보신 · 응신으로서 내 아님이 없이 나투는 …, 돼지를 건지시려니까 응신으로 돼지한테로 들어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물들까봐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서 들어가야 저 항력을 느끼지 않지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돼지가 알면 저항력을 느껴서 못 받아들이죠. 뱀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목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용신이 돼서 들어가야 제깍 받아들일 수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일체 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두 번 죽어서 둘 아닌 도리를, 모든 전체가 둘 아니게 돌아감을 알고, 세 번 죽어서 모두가 내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또 세 번 죽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깨닫고 본다면, 그렇게만 하게 된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수박을 앞에 놓고서 '이게 뭐꼬' 하고 의정을 내고 아무리 굴려봐도 수박 맛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죽고 사는 거를 버린 채 그냥 깨뜨려서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일 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아니면 우리 식구가 죽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돌 위에 세워나도 살아요, 이 도리를 발견하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은 어떡하든지 먹이고 입히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잠시 산다 하더라도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갈 때는 콩깍지 익어서 건드리기만 해도 '툭' 하고 콩이 떨어지듯 말입니다. 콩이 익기를 않으면은,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잘 못해서 익기를 않으면은 콩깍지가 익지 않은 거와 같아서 죽을 때도 그냥 병고에 휘달리고 콩깍지 속 껍데기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질문자2: 스님 법문 중에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고, 네 주장자가 없다면 네 주장자를 뺏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오셨으니 스님 주장자를 주고 가심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주셨다고 생각해도 될런지요.

스님: 예전에 임제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항상 말하죠.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하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첫째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면 마음을 줄 수가 없죠. 또 두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아주 숭배하고 받아들인다면 아주 기특한 마음이 들어가고 좋은 마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깐 주는 거죠. 그런데 얄밉게 해보세요. 그것을 아예 그냥 뺏음과 같은 거죠.

또 고걸 이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에 전화를 놓지 않았다면 전화가 올 수도 없고 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전화가 있음으로 임제스님이 전화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전화를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예 '나한테 전화가 있다' 하고 전제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꼬' 하고 가는 것 보다 아주 전제하고 들어 가세요. 나한테 전화가 있다! 이 전화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사업적으로나 모든 걸 할 때도 내가 통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통한다, 몸으로는 뛰어주고 마음으로는 통해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있는 것이니까 믿고 맡기자, 그리고 지켜보자, 지켜보면 알 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게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마음의 주장자가 없다고 하지만 옛날에도, "부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佛)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똥친 막대기니라" 한 것도, 옛날에는 밑 씻개가 없으니까 작대기를 갖다가 세워놓고선 그저 누구든지 똥누면 그걸로 쓱 씻고 너무 묻었으면 개천에 가서 닦아다가 도로 세워 놓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똥친 막대기죠! 부처가 뭐 다른 겁니까? 똥친 막대기지. 그런데 똥친 막대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무한량 할 수 있는 마음, 지혜를 내시고 , 무한량 남과 나와 서로 통화를 하려고 하고, 꽃도 아프다 아주 좋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자주 재미있는 게 생길 겁니다. 재미있는 체험이 자꾸자꾸 생길 겁니다.

정말 체험을 하고 실험하고 들어가는 분들은 너무나 주인공자리가 소중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한 걸 진작 몰랐다고 얘기하더군요.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서 어서 자기 전화통을 놓으시고 항상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1991년 8월 25일 대구 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지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육임(六壬) 강의 안내

오행(五行)하는 사람치고 **을·기·임(乙·奇·壬)**이란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천문(天文)은 太乙, 지리((地理)는 奇門, 인사(人事)는 六壬이라는 것이지요.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육임을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에 미치지 못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게 됩니다. 육임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 같은 것입니다.

한국 육임학회에서는 이 좋은 육임을 전국적으로 개강(開講)시켜 방방곡곡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여러분에게 육임의 진수를 알려드리고자 전국 주요도시에 **「육임학당」**을 개설합니다.
아래 장소를 보시고 편리한 곳을 택하여 육임에 입문하십시오. **법력**과 **신명**과 **도력**에 있어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육임학당 「효사숙」 제3기 02-998-8683
육임학당 「일경숙」 제1기 02-2203-4805
육임학당 「복경숙」 제1기 02-3446-4118
육임학당 「부산숙」 제1기 011-883-8347
육임학당 「대구숙」 제1기 016-580-6654
육임학당 「전주숙」 제1기 011-650-8835
육임학당 「수원숙」 제1기 017-753-1592
육임학당 「인천숙」 제1기 011-729-6011
육임학당 「청주숙」 제1기 011-492-2376
육임학당 「광주숙」 제1기 011-9606-7090
육임학당 「원주숙」 제1기 017-377-7005
육임학당 「대전숙」 제1기 016-445-4580
육임학당 「시흥숙」 제1기 011-326-8374
육임학당 「제주숙」 제1기 064-743-3703

■ 개 강 : 2002년 9월 6일 금요일(효사숙 기준)
■ 시 간 : 매주 1회 4시간(각 학당별로 일시가 정해짐) 13주 52시간
■ 교 재 : 효사육임강의록
■ 비 용 : 일백오십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카드결제 됨

한 국 육 임 학 회

육임학당 **효 사 숙**

활인전문천역자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원(휴대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원(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 300,000원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28개) 900,000원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부산지사 : 051-851-2349 ▶서울강남지사 : 02-2203-4805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